

오늘 우리는 로마서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실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보통 사람들; 그것은 전문 신학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가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까지

요컨대,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의 그의 계획은 스페인을 방문하고 도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16장의 장면을 보면,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지 않습니다. 22절에 “기록한 나 더디오는 이 편지를 주 안에서 문안하라”

Tertius는 누군가가 말하는 동안 편지를 쓰는 많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바울이 실제로 그의 편지에서 그 이름을 밝히고 공로를 인정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더디오를 알고, Tertius를 언급하는 것은 그의 편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더디오, 그리고 방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이 편지의 끝을 쓰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마서 16:1-16 KLB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뵘뵘을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깃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이름들은 100~200명의 로마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이 마지막 장은
개인적인 인사와 최종 조언이 결합된 마무리입니다.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부상'에서 기독교인의 수를
서기 200년에 로마 치하에서 살았던 60,000,000명 중 약 7,500명의 전체
제국

전체 제국 인구의 0.02%. 확실히 교회는 145년 전에는 훨씬 작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당시 인구 1,000,000명의 도시인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약 200명의 신자였습니다. 아마도 서기 55년의 절반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의 전체 기독교 인구를
구성했다면, 바울은

그의 편지 끝에서 교회의 절반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우로는 위계나 경쟁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의 친구이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 메시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 사람들은 독점 클럽의 일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 화해, 구속의 이야기에 기록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엘리트 동아리가 아니며,

예수에 대한 희망은 신학적으로 진보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기겁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

Alpha에서 온 내 친구 중 한 명이 매주 나에게 와서 이번 주에 내가 7에게 말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것을 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복음을 나누는 방식은 그녀의 삶의 좋은 소식을 통해: 그녀가 이제 막 영구 거주지를 갖게 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고양시키는 말을 던지는 바울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둘 다인 칭찬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무감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5:13-16(niv)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것을 보존함으로써 소금이 되고 악을 쫓아냄으로써 빛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2주 전 우리는 많은 분들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중 한여성은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여자분에게 도움을 받고 난후에, 세례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자신이 있는 그대로 환영받는 느낌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공개 선언을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고모는 겨우 20살 때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할머니를 포함한 그녀의 자매들을 초대합니다. 목사님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를 받고 싶다면 줄을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그들은 흡연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성령의 씻음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지금까지 할머니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1- 나의 고모처럼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삶에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녀가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2- 주님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감각을 모으고 초대하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면역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산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17절부터 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 분쇄자에 대한 콜백입니다.

저주는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화해시키기 위해 아들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구절에서 단어 크러쉬(crush)는 정복하다, 몸을 찢다, 몸을 산산조각 내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함께함’ ‘단합’은 우리의 힘입니다 .

분열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 통일성이 없는 진리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진리 없는 일치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정한 복음 그 자체.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제 나의 복음대로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실 이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취었던 비밀의 계시를 좇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래전 26년에 이미 나타나셨고 선지자들의 글로 알게 되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는 모든 이방인으로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27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 나는 그를 A Christmas Story의 Ralphie처럼 상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쏘 것입니다.

편지 쓰기를 끝내고 “네. 좋아요”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과 영광이 복음으로 - 좋은 소식으로.

바울이 그러한 복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합니다.

바울이 전파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영원히 그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분.

처음에 사람들의 목록을 언뜻 보면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사람들에 대해 읽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당신과 나 같은 단순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민수기 외에 로마서 16장은 가장 긴 장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의 목록. 우리는 그들 대부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한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신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개종자, 이방인, 유대인, 가족 - 형제, 자매, 아들, 어머니, 입양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여성, 배우자, 이웃, 친절하고 즐거운 일꾼,

동역자, 종, 자유인, 사도, 집사, 지도자, 시험받는 자,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 피곤한 자,

친구, 남자, 수많은 여자, 사랑하는 사람(풀은 이 용어를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의 뿌리에는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는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제기되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이름 목록에 불과해지기 쉬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누구를 보지만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당신이 자신을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엘리트 클럽이 아니며, 예수님의 희망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향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16장과 같은 구절을 얼버무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우리가 이미 좋은 것을 모두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반향되는 관계의 깊이는 뼈와 살을 붙입니다.

편지의 이전 15 장의 신학에 대해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축하합니다.

축복

친구를 사귀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좋은 새 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